

#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화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4월 중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규모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2년여 동안 시행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였다. 이제 식당과 카페는 왓자지껄하고, 공항은 들썩이고, 거리는 분주하다. “아, 이게 얼마 만인가.”라는 감탄도 잠시, 우리가 다시 돌아갈 풍경은 2년여 전의 그때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까지 모두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성장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 폐해는 ‘불평등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같은 얼굴로 드러났는데, 코로나19는 보건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다시 돌아간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묵은 숙제들과 더욱 심화된 어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균열상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세계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고령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일의 미래’ 논의가 더 시급하게, 더 종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ILO Centenary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Work)”을 채택하면서 ‘일의 미래’는 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사실 ‘미래’라고 하지만 그 미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미 일의 세계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배달노동과 같은 비대면 일자리를 확산시킨 것은 물론 그 일자리가 우

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경험하게 하였다. 특정 부문에서는 공장과 사무실과 같은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진보한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비대면 관계의 인간들을 ‘연결’하였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업무수행은 관리, 통제, 평가, 보상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의제를 현안 과제로 만들었다. 이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러했듯이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측면에서의 취약성은 이번 위기에서도 드러났지만, 사회·경제 활동의 제약에 따라 양질의 교육 기회, 네트워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자원 확보,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는 이들의 이후 삶의 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일의 세계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 변화의 범위와 깊이가 국가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일의 세계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해법은 그러한 다양성을 포착하고, 가능한 한 포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연합은 ILO와 함께 “일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Building Partnerships on the Future of Work)”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의 변화와 관련된 핵심 도전과제들에 관한 작동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사실 기반 분석(fact-based analysis)을 한다는 점이다. 일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특화된,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영역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기반으로 정책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ILO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물류업에 미친 영향’, ‘의류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자동화 효과와 젠더 문제’, ‘노동시장 이행의 새로운 패턴’, ‘고용구조의 글로벌 대전환’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이 과정에서 일의 미래 논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을 형성하고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EU 회원국만이 아니라 비EU 국가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전 지구적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이 프로젝트에서 고려하는 파트너십 형성의 한 주체로 포함되었다. 그 일환으로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지난 2월 8~9일, 한국의 노·사·정 관계자들과 함께 일의 미래를 주제로 ILO-EU-KLI 정책 대화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에 걸친 노동시장 이행'을 주제로 청년층과 고령층에 관한 논의를, '디지털화와 새로운 기술'을 주제로 플랫폼노동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유럽-한국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각이 처한 상황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호 특집에서 2월 정책 대화 내용 중 청년층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행, 플랫폼노동에 관한 EU와 ILO 관계자들의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필자 중 한 명인 마시밀리아노 마스케리니는 본문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하데스의 명계를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인 케르베로스의 현대판으로 비유하면서 보건, 경제, 사회 세 가지 측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책 대응을 주문하였다. 그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3주체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는 민주적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 옛 건물(1926년 개관) 정문에 삼중자물쇠를 설치하여 노사정 3자가 각각 열쇠를 모두 꽂아야만 문이 열리도록 설계한, 그 삼자주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KLI**